

청소년의 약물남용실태와 대책

주 왕 기*

I. 머리말

인류에게 미 해결의 장으로 있는 것이 3가지가 있다. 환경오염과 기근 그리고 전쟁이다. 그간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지만 인간은 아직도 이 세가지의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상태에서 인간의 정신세계를 황폐화 시킨다는 면에서는 더욱 무서울 수도 있는 약물남용 문제가 하나 더하여 인류의 장래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II. 약물남용의 정의

약물남용은 항정신성 약물의 비의학적 사용(non-medical use of psychotropic agents)을 의미한다. 항정신성 약물은 정신(psyche)을 향(tropic)해서 작용하는 약물을 말하며 정신은 뇌에서 나오는 뇌는 중추신경계로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항정신성 약물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물을 말한다. 그리고 불법적 사용과 연관 지을 때는 "마약류"라고도 한다. 비의학적 사용은 의학적 목적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목적에 사용한다는 것으로 예를 들면 기침이 없는데도 기침약(진해약)을 사용하는 경우이다. 청소년들은 기침과는 상관없이 약물에 취하여 환각(?)적 분위기를 얻고서 진해제를 사용한다.

III. 남용약물의 종류

남용약물, 즉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물은 두 종류로 분류된다. 한 종류는 뇌의 기능을 활발하게 하여 중추신경 흥분제(각성제)라 하고 다른 한 종류는 뇌의 기능을 억제하여 중추신경 억제제라고 한다. 중추신경 흥분제(Contral nervous system stimulants)에 속하는 약물로는 카페인(커피), 니코틴(담배), 암페타민(필로폰 등), 코카인 등이 있고 중추신경 억제제(central nervous system depressants)에 속하는 약물에는 아편, 몰핀, 헤로인, 코데인 등과 같은 마약을 포함해서 술, 수면제, 진정제, 신경안정제, 흡입제(본드, 가스 등) 등이 있다. 대개 흥분제는 습관성이 있고 억제제는 중독성이 있다. 그런데 어떤 일련의 약물들은 중추신경계를 흥분시키기도 하고 억제시키기도 하며 때로는 흥분작용과 억제작용을 동시에 이르기기도 하는 변칙적인 작용을 하는데 이런 약물들을 환각제(hallucinogens)라고 한다. 환각제는 LSD, 메스카린, 대마초, 실로사이빈 등이 있다. 각종 남용약물의 개요를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IV. 한국의 약물남용 실태

한국에서 그간 사회문제를 일으켜왔던 남용 약물들을 살펴보면 60년대와 그 이전에는 마약(법적)이, 70년대는 대마가, 80년대는 필로폰

* 강원대학교 약학대학

〈표 1〉

뇌용약물의 개요

구분	종류	약리학의 분류	범의 분류	의학적 용도	중독성* (유해적의존)/정신적의존	정신성** (정신적의존)	내성	부여방법	신체의 증상 및 행동	해독
마약	Opium(아편) Heroin Morphine Codeine Methadone Demerol	중추신경억제제	마약범	진진진 통통통 해해해	있 있 있 없 없	없 없 없 없 없	내성 없 없 없 없	경구, 주사, 코흡입	중추신경 억제로 인한 행복감과 도취감을 조절하며, 상신, 동공축소, 눈물, 콧물, 오한, 발한, 식욕감퇴, 탈리움, 수면, 명칭할, 체중감소	정신적의존(정신적으로 갈망: 습관성) 신체적의존(신체적으로 갈망: 중독성) 내성, 금단증상, 갈망, 눈물, 파산증, 긴입, 호흡마비, 사망(파랑사우시)
	Cocaine	중추신경흥분제	마약범	국소마취제	없	없	없	주사, 코흡입	흥분, 동공산대, 불안, 초조, 진전(손떨림), 미안한 생각, 용광과 개인에 따라 다양함, 불안, 초조, 도취감, 감정억제, 동공산대, 착각, 수면, 예술활동에 대한 행동, 공황 또는 공포심, 정신병적 반응	강한 정신적의존, 정신혼돈, 혐기증, 긴장억제, 경련, 사망(파랑사우시)
	L.S.D. DMT, DET STP, LBU Mescaline Psilocybm Pilocycladine	중추신경흥분제 그리고 또는 억제제***	향정신성의약품 판리범	없	없	없	없	경구, 주사	무엇에 따라 다양한 양, 인공향향, 구강 건조, 다면(말이 많음), 소형(수면)의 왜곡, 파장된 시각	신체적의존은 없으며 정신적의존은 강해장 파와 내성 있다. 정신이상 및 영구 정신이상 가능성, 예측불허한 행동, 체계적이며 위험한 행동, 자살, 살해, 불쾌쉬워 현실
후분성제(각성제)	Amphetamines Benzedrine Dexedrine Methedrine 뽕로폰	중추신경흥분제 그리고 또는 억제제***	대마판리범	없	없	없	경구, 흡입	동공산대, 식욕감퇴, 흥분, 다면, 진전, 흥분, 구강 건조, 입술, 호흡곤란, 심근, 심방, 피로, 불면, 다면, 공격적 행위, 환각, 구토, 편두통	정신적의존 가능성이 있으며 미생과 신체적의존은 없다. 음간의존에 의한 사고	
	Barbiturates Luminal Secondal Nembutal Tuinal	중추신경억제제	향정신성의약품 판리범	기면제 비경련제	있 있 있	있 있 있	없 없 없	경구, 주사	동공축소, 취한 행동, 말더듬, 사고진단, 미안, 어지, 탈리움, 명칭할, 파랑사우시	고혈압, 심정맥비, 뇌손상가능성, 영양 장애, 극도의 피로, 발한, 강한 정신적의존 및 신체적의존, 내성, 부주의한 경우, 혼수, 사망(파랑사우시)
진정·수면제	Barbiturates Luminal Secondal Nembutal Tuinal	중추신경억제제	향정신성의약품 판리범	진정제 경련제	있 있 있	있 있 있	없 없 없	경구, 주사	동공축소, 취한 행동, 말더듬, 사고진단, 미안, 어지, 탈리움, 명칭할, 파랑사우시	정신적의존, 신체적의존, 오관과 조절능력 상실의 의한 위험, 음단증상, 긴장장애, 뇌손상, 긴장장애, 파랑사우시, 사망(술과 함께 부유시 상수작용)
	Valium Librium Ativan Serax Restoril Halcion	중추신경억제제	향정신성의약품 판리범	안기제 근육완제 수면제	있 있 있	있 있 있	없 없 없	경구	중추신경 억제제의 유사(그러나 보다 약함) 정신적, 신체적의존, 술, 마약 수면제와 겸용시 상수작용과, 시가장애, 혐기증, 탈리움, 금단증상(흥분, 오심, 긴장억제, 경련 등)	
흡입제(본드)	Tohene Hexane Acetone Gasoline Thinner	중추신경억제제	독극물범	없	아직모름	있	없	흡입	술과 유사함, 동공축소, 혼수, 언어장애, 혐기증, 도취감, 시각적 착각, 환각, 환각작용이 있다 그러나, 눈물, 눈물, 침, 극조절장애, 취한 행동, 성병, 흥분, 탈리움, 무의식	정신적의존, 판정예프 오는 위험, 중격적 행위, 반사회적 행동, 긴장장애, 심장장애, 흡수장애, 영구적 뇌손상가능, 식욕감퇴, 체중감퇴, 사망
	Wine Beer Whiskies	중추신경억제제	없	진정판리범	있	있	없	경구	무주혈과 개인적 정서적 상태에 따라 다양한 양, 인공향향, 구강 건조, 다면(말이 많음), 소형(수면)의 왜곡, 파장된 시각	신체적의존, 정신적의존, 조정력 상실, 감각적 상태 등으로 인한 위험, 사망(수면제와 혼용하면 더욱 위험) 위염, 긴장, 해장, 반사회적 행동, 뇌손상, 각종 장기손상
담배	Cigarettes Cigars Pipe Tobacco Chewing Tobacco Smuff	중추신경 흥분제	없	없	없	없	흡입	타액증진, 기관지분비증진, 혈압상승, 심박수상승, 동공산대, 용광의 증가로 진전 구두, 호흡중진이 온다	폐암, 구강암, 후두암, 만성기관지염, 폐기종 심장질환, 혈관질환, 공기오염	

* 중독성: 신체적으로 갈망, 중독성
** 정신성: 정신적으로 갈망, 의지적 극복 기능
*** Central nervous system stimulants and/or depressants

한국 약물 남용 연구 소
강원도 춘천시 포평동 692-22
전화(0361) 54-6127

(히로뽕)이, 그리고 90년대에 들어와서는 엘에스디(LSD)와 코카인이 추가되어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현재 한국의 전반적인 약물남용 실태를 알아볼 수 있는 조사자료는 없다. 이유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한 국가차원의 조사가 한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약물남용실태를 간접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그것은 대검찰청 자료에 의한 한국의 마약류 사범실태일 것이다. 그간의 한국에서의 마약류 사범실태를 보면 표 2와 같다.

〈표 2〉 한국의 마약류 사범수
(단위: 명수)

년 도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명수	1190	1629	2016	3939	2876	4222	3133
법명	(100%)	(137%)	(169%)	(331%)	(326%)	(355%)	(263%)
마약법	361	375	239	268	857	1215	838
	(100%)	(104%)	(64%)	(74%)	(237%)	(337%)	(232%)
대마법*	328	392	318	351	1025	1450	1138
	(100%)	(120%)	(97%)	(107%)	(313%)	(442%)	(347%)
향정법*	501	862	1459	3320	1994	1557	1157
	(100%)	(172%)	(291%)	(663%)	(398%)	(311%)	(231%)

*대마법: 대마관리법

향정법: 향정신성 의약품관리법

1985년을 기점으로하여 1991년을 비교하였을 때 전체적인 마약류사범은 263%가 증가했고 내용별로는 마약사범 232%, 대마사범과 향정사범은 각각 347%와 231%가 증가했다. 하지만 1990년도에는 전체 마약류 사범수가 355%나 증가하기도 했다. 마약류 사범수의 증감은 단속의 강·약에서 비롯될 수도 있다.

필자의 연구소에서 그간 조사된 한국 고3학생들의 약물남용 실태를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아울러 미국 고3학생들의 약물남용 실태와 비교해 보면 표 4와 같다.

한국의 경우 과거에 비하여 다소 감소경향을 보이고있다. 분석된 이유중에는 과거에는 호기심 때문에 그리고 법적통제가 적절하지 못하여 불특정 다수가 사용했지만 현재는 문제성이 있는 집단에서 주로 사용되기 때문인 것 같다. 그리고 타약물로의 전환도 있다.

한국 고3학생들의 약물남용도는 미국 고3학생들에 비하여 훨씬 낮았다. 하지만 흡연의 경우는 미국 고3남학생의 19.1%(1990년)가 그리고 한국 고3남학생의 29.7%(1990년)가 매일 흡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한국 고3학생들의 약물남용 실태

(단위: %)

년 도	지 역	1980			1982			1989			1990			1991			1992		
		(춘천)			(강원)			(전국)			(강원)			(강원)			(강원)		
명수		남	여	합	남	여	합	남	여	합	남	여	합	남	여	합	남	여	합
약물		199	198	397	988	944	1932	2950	3290	6240	2607	2463	5070	442	445	887	575	554	1129
담	배	60.2	3.0	31.6	11.9	1.5	6.3	37.8	7.8	22.8	51.0	3.3	27.2	51.0	3.3	27.2	36.0	1.8	18.9
	술	81.6	23.7	52.8	17.2	4.9	10.5	46.6	21.1	34.0	63.6	16.2	39.8	63.6	16.2	39.8	48.8	9.5	29.2
대	초	3.1	0.0	1.6	1.2	0.4	0.8	0.8	0.5	0.7	1.0	0.1	0.7	1.0	0.1	0.7	1.3	0.0	0.7
마	인	-	-	-	12.2	-	-	0.6	0.5	0.6	0.1	0.7	0.4	0.1	0.7	0.4	0.8	0.0	0.4
코	제*	4.1	3.1	3.6	-	13.0	12.6	3.8	3.8	3.8	2.3	2.6	2.5	2.3	2.6	2.5	0.3	0.0	0.2
각	폰	-	-	-	0.0	-	-	0.1	0.3	0.2	0.1	0.0	0.1	0.1	0.0	0.1	4.3	1.8	3.1
필	약	-	-	-	0.9	0.4	0.2	0.1	0.3	0.2	0.1	0.0	0.1	0.1	0.0	0.1	0.0	0.0	0.0
로	제	-	-	-	0.9	0.8	0.7	1.2	0.5	0.9	1.0	0.0	0.5	1.0	0.0	0.5	0.3	0.0	0.2
마	제	3.0	2.5	2.8	2.3	4.0	3.2	1.8	1.4	1.6	3.1	0.3	1.7	0.3	1.7	5.6	0.5	0.0	0.3
환	제	-	-	-	1.0	0.3	0.6	1.7	1.3	1.5	1.4	1.4	1.4	1.3	1.4	1.3	1.4	0.8	0.2
각	제	-	-	-	-	-	-	3.1	2.6	2.9	2.3	1.4	2.3	1.9	1.4	1.9	1.9	0.7	1.3
흡	제	-	-	-	-	-	-	16.1	16.9	16.5	11.7	17.6	11.7	14.7	17.6	14.7	12.5	18.3	15.4
입	제	-	-	-	2.0	3.5	2.8	0.2	0.7	0.5	1.0	0.2	1.0	0.6	0.2	0.6	0.3	0.0	0.3
신	제	-	-	-	0.5	1.0	0.8	0.3	0.1	0.2	0.2	0.1	0.2	0.2	0.1	0.2	0.0	0.0	0.0
경	제	-	-	-	-	-	-	-	-	-	-	-	-	-	-	-	-	-	-
안	제	-	-	-	-	-	-	-	-	-	-	-	-	-	-	-	-	-	-
정	제	-	-	-	-	-	-	-	-	-	-	-	-	-	-	-	-	-	-
진	제	-	-	-	-	-	-	-	-	-	-	-	-	-	-	-	-	-	-
진	제	-	-	-	-	-	-	-	-	-	-	-	-	-	-	-	-	-	-
해	제	-	-	-	-	-	-	-	-	-	-	-	-	-	-	-	-	-	-
하	제	-	-	-	-	-	-	-	-	-	-	-	-	-	-	-	-	-	-
스	제	-	-	-	-	-	-	-	-	-	-	-	-	-	-	-	-	-	-
타	제	-	-	-	-	-	-	-	-	-	-	-	-	-	-	-	-	-	-
민	제	-	-	-	-	-	-	-	-	-	-	-	-	-	-	-	-	-	-

- : 조사안됨

* : 카페인 함유 제제류

		남자				여자				합계			
		한국		미국		한국		미국		한국		미국	
		1992	1982	1990	1982	1992	1982	1990	1982	1992	1982	1990	1982
담	배	53.6	44.3	64.1	67.8	4.6	5.7	64.4	72.0	29.1	38.5	64.4	70.1
	술	72.0	56.4	90.0	93.4	21.4	41.5	89.1	92.4	46.7	66.5	89.5	92.8
대	마	2.9	3.3	43.6	51.5	0.2	0.1	37.3	55.5	1.6	1.8	40.7	58.7
코	카	0.3	-	11.5	28.0	0.0	-	7.2	13.7	0.2	-	9.4	16.0
각	성	10.7	21.8	-	-	3.6	37.4	-	-	9.7	29.4	2.7	-
필	로	0.0	-	17.2	26.8	0.0	-	17.8	28.2	0.0	-	17.5	27.9
마	약	0.5	0.3	9.0	20.6	0.0	0.2	7.5	8.6	0.3	0.2	8.3	9.6
환	각	1.6	1.7	11.7	24.4	0.0	0.5	6.8	10.2	0.8	1.1	9.4	12.5
흡	입	5.6	7.4	21.7	15.3	0.4	4.9	14.1	10.4	3.0	6.2	18.0	12.8
신	경	2.4	5.7	7.2	13.8	3.0	7.8	7.1	14.2	2.2	6.4	7.2	14.0
수	면	7.2	-	5.1	16.0	2.2	-	5.0	14.1	4.7	-	5.3	15.2
진	통	36.0	-	-	-	37.9	-	-	-	37.0	-	-	-
진	해	1.6	7.1	-	-	0.4	11.7	-	-	1.0	9.4	-	-
항	히	0.3	0.5	-	-	0.0	1.2	-	-	0.2	0.8	-	-

- : 조사안됨

V. 약물남용! 무엇이 문제인가?

남용약물은 습관성(habituation)과 중독성(addiction)이 있다.

습관성은 정신적 갈망 즉, 정신적 의존(psychological dependance)을 말하고 중독성은 육체적 갈망 즉, 육체적 의존(physical dependence)를 말한다. 그래서 약물남용자가 이들 약물을 상당 기간 주기적으로 그리고 또는 정기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금단증상 때문에 자의적으로 약물사용을 중단하고 싶어도 중단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 그리하여 의학적 문제와 사회학적인 문제를 일으킨다. 의학적인 문제로는 이들 약물을 계속 사용하므로써 각개의 약물이 갖고있는 독성과 부작용이 나타나고 아울러 과량사용에 의한 사망, 불결한 주사바늘에 의한 합병증-간염, 피부염, 심장판막염, 폐종양, 뇌혈관염, 정맥염 등과 AIDS 감염을 일으킨다. AIDS환자의 30-50%가 약물남용자라는 것은 이를 잘 뒷받침 해준다. 그리고 여성에서는 태아 약물중후군을 일으켜 약물중독아나 정신박약아, 신체기형아 등을 낳게 된다. 사회적인 문제로는 약물에 취하여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 비행기,

선박, 전동차 등의 추돌, 충돌, 추락 사고 등과 자살, 인질, 살인 등 전혀 예측이 불허한 각종 폭력사고를 유발한다. 아울러 약물을 구입하기 위한 자금마련을 위하여 절도, 강도, 마약거래, 살인행위 등을 자행하게 되며 여자의 경우는 매음도 하게된다. 외국의 조사에 의하면 약물에 중독된 여성의 90% 정도가 매음을 한다고 한다. 결국 약물남용자는 인격의 파탄과 황폐화 현상을 초래한다. 그리고 중독자 치료성공율이 20% 미만이라는 것과 재범율이 50-80% 정도에 이른다는 것은 이들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그래서 1971년, 당시 미국의 대통령인 닉슨은 국가비상 사태(national emergency)를 선포하고 미국의 공적 제1호는 약물남용(America's public enemy No 1 is drug abuse)이라고 했다.

약물남용! 무엇이 문제인가?

남용약물은 습관성과 중독성이 있어 비의학적 목적을 갖고 남용하다 보면 자의로 중단하고 싶어도 중단할 수 없는 상태(금단증상)에 이르기 때문에 결국 의학적인 문제의 사회학적인 문제를 일으켜 개인, 가정, 사회, 국가 그리고 세계를 파멸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VI. 약물남용의 원인

사람들이 약물을 남용하게 되는 원인에는 여러 요인들이 있다.

이중 “호기심”과, “동료와 어울리기 위해서”, 그리고 “구입이 용이해서”와 같은 이유로 약물을 한 두번 또는 두 세번 사용해 본 것은 그런 대로 긍정적으로 보여질 수도 있다. 하지만 “반항”이나 “도피”, “도전” 그리고 “자아의식의 결핍”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이는 부정적인 측면으로 보아야하며 예후가 좋지 않다.

1. 약물남용자의 일반적 특성

- 행동에 있어서 설명할 수 없는 변화가 나타난다.
- 가벼운 증상으로는 침울해지거나 주변에 대하여 무관심해진다.
- 무의식적인 근육의 떨림과 갈증이 나타난다.
- 어린시절의 성격에 따라 흥분상태나 여러상태를 나타낼 수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행동이나 인격에 변화를 줄 수도 있다.
- 학교 또는 직장 출근, 작업의 질, 성적, 작업 생산성 등에 갑작스런 변화를 일으킨다.
- 비정상적으로 화를 내거나 감정이 폭발한다.
- 책임 회피의 태도를 보인다.
- 전체적인 태도에 변화를 보인다.
- 의모가 보기 싫게 변한다.
- 행위와 소유물에 대하여 은밀해진다.
- 동공의 축소나 확대를 감추기 위해 적절한지 못한 장소나 시간(실내 또는 밤)에도 색안경을 쓴다.
- 주사자국을 감추기 위해 소매가 긴 옷을 계속 입고 다닌다.
-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약물남용자와 알고 지낸다.
- 부모나 친지로부터 평소와 다르게 자주 돈을 빌린다.
- 타인으로부터 주의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의형이나 생활태도를 의식적으로 두드러지게 하려고 한다.
- 약물을 감추기위해 창고, 옷장, 지하실과 같은 이상한 장소에 이유없이 자주 드나든다.
- 개인위생에 무관심해진다.
- 행동의 갑작스런 변화(취미나 운동에 대한

관심 저하, 사회적 활동에 대한 관심 저하, 빈번한 결석, 급격한 성적 저하)

- 변덕스럽거나 또는 우울해진다.
- 멍청한 상태로 앉아서 허공을 쳐다본다.
- 옷이나 장식에 대한 관심 저하(특히 이전에 깔끔하였거나 관심이 많았던 젊은이의 경우)
- 이성에 대한 관심이 적어지거나 아주 없다.
- 졸리운 듯한 태도
- 사소한 일에도 쓸데없이 자주 웃는다.
- 담배나 알콜성 음료 또는 그 둘 다의 사용이 증가한다.

2. 약물남용의 억제대책

약물남용을 억제하기 위하여서는 4가지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① 사회조사, ② 법제정 및 개정, ③ 교육과 계몽 그리고 ④ 치료와 재활이다.

사회조사는 어떠한 약물들이 어떠한 집단에 어느 정도로 남용되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이요 법제정은 사회조사를 바탕으로 적절한 통제법을 만드는 것이다. 법은 너무 약하여 무시당하거나 너무 강하여 희생자를 내는 일이 없어야 한다. 교육과 계몽은 남용약물들의 유해성과 남용행위의 위험성을 홍보하는 것으로 특히 교육의 경우는 상당한 기술(?)을 요하며 교육자가 약물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면 반대효과를 나타낸다. 치료와 재활은 남용약물에 희생된 자들을 의학적으로 치료하고 사회적으로 재활시키는 것이다. 이 네가지 중 우리나라의 현실은 법제정만 되어 있을 뿐 나머지 세가지는 제대로 실행되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그 같은 근거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아직도 정부차원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한 사회조사가 한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으며, 교육과 계몽에서도 정부는 물론 여하한 사회단체에서도 전국민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지 못하다. 뿐만아니라 전문적인 치료소나 재활소도 아직은 없다. 다만 간이적인 치료소가 있을 뿐이다. 가까운 시일내에 정부차원의 전문 치료소가 만들어 진다고 한다. 그러나 전문치료인이 없으면 조중사없는 비행기와 같다. 따라서 정부가 하루속히 이들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이 계통 전문인 양성에 많은 예산을 투여하여야 하겠다. 그리고 법이 아무리 강화되어도 절도, 강도, 살인, 강간범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도 잘 깨달아야 하겠다.

VII. 전 망

세계의 좌표가 되는 미국의 마약류 사범수는 1980년을 기점으로 할 때 판매와 제조사범이 1988년에는 180% 그리고 소유사범은 107%나 증가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매년 실시하는 고 3학생들의 약물남용실태를 보면 1980년 66%에서 1990년에는 47.9%로 감소 현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전국민을 대상으로한 조사에서는 1979년 34.3%에서 1990년에는 37.7%로 오히려 증가현상을 가져왔다. 현재 미 연방정부는 미국 국민들의 약물남용도가 평형을 이루고 있으며 청소년의 경우는 다소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그간의 예방과 억제 노력의 결과라고 좋아하고 있다. 하지만 좀더 두고 보아야 할 일이다. 그런데 여기서 그같은 현상이 중요한 의미를 내포할 수도 있는데 이유는 그들은 자국내 마약류 판매시장의 상황(감소)에 따라서는 그 판매망을 필연적으로 해외로 확대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시말하면 미국내에서 마약류 판매가 감소현상을 보이면 밀매조직단들은 해외시장을 새로이 구축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대상은 유럽은 물론 아시아가 최적임지다. 이유중의 하나는 이들 지역은 아직도 미국과 같이 약물남용억제 대책이 체계화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일본과 한국에서의 마약법 위반 사범이 최근에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증거이다. 미국내에서의 담배소비량이 감소하자 미국내 담배업자들이 동남아 국가로 그 판매망을 구축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해가 가리라고 본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볼 때 마약류 생산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듯 압수량도 증가하고 있다. 마약류의 최대 소비국은 미국이다. 그래서 미국내의 소비량이 평형을 이루거나 다소 감소 경향을 보인다면 마약류 생산 증가분은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동구권으로 흘러들어 갈 수 밖에 없다. 결국 미국의 마약세계가 지구의 전 지역을 오염시킬 수 밖에 없는 결과를 낳게 된다. 그리하여 UN은 이같은 향방을 감지하고 1990년 2월 뉴욕에서 개최된 UN마약류 퇴치 특별총회에서 UN마약류 퇴치 10개년 계획을 채택하고 각국으로 하여금 나름대로의

계획을 수립 진행토록 하고 있다. 그리하여 '90년대의 약물남용(마약류) 문제의 전망은 60년대 이전의 마약과의 전쟁을 1차 전쟁으로 보고 '60년대에서 '90년대직전까지를 2차전쟁으로 본다면 '90년대의 마약과의 전쟁은 3차대전쟁이 되며 그 결과는 세계 마약조직의 밀매 침투와 각국 정부 및 UN의 억제 대책이 어떻게 전개 되느냐에 따라서 결정 되리라 본다.

올들어 현재 김포공항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된 각종 마약류의 총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5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상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VIII. 대응책 및 제언

1. 약물남용현상을 예방하고 억제하기 위하여서는 ① 사회조사 ② 법제정파 개정 ③ 교육과 계몽 ④ 치료와 재활의 4가지 요소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 중 우리의 현상환은 법정만이 되어 있을 뿐이다. 앞으로 사회조사는 물론 교육과 계몽, 치료와 재활을 위하여 정부와 사회단체 그리고 학계 등의 참여가 요구된다.
2. 그간의 여러조사를 참고하여 예견하여보면 앞으로 상당기간은 약물남용 인구가 증가하리라고 생각한다. 약물남용 인구의 증가현상과 감소현상을 파악하기 위하여서는 어느 "한"해의 조사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렇기 위하여서는 선진국과 같이 매년 일정기간을 택하여 약물남용의 사회조사를 실시함이 바람직하다.
3. UN이나 선진국이 규제하지 않는 약물일지라도 한국에서 그 약물이 청소년 층이나 성인층에 광범위하게 남용될 경우 법적 규제를 하여야 한다. 특히 그 약물이 습관성과 중독성이 있고 금단증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더욱 그렇다(예: 날부핀 등의 경우). 남용약물은 나라에 따라 그 종류가 다양하다. 다시말해서 선진국에서 남용되고 있지 않은 약물이 중진국이나 후진국에서는 남용될 수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법이 반드시 UN에 의한 규제법이나 선진국의 규제법을 그대로 적용할 필요는 없으며 나라에 따라 나름대로의 규제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4. 중·고등학교에서 약물(남용)교육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약물교육은 전문지식을 필요로 한다. 그렇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오히려 역작용을 낳기 때문이다. 70년대의 학교 학사제도도 부활시켜 그들로 하여금 학교 약물교육을 담당토록 함이 바람직하다.
5. 학교학사를 이용함이 어려울 경우 양호교사나 일반교사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경우 그들에게 최소한 상당(30시간 이상) 시간의 약물교육이 선행 실시 되어야겠다. 현재 매년 보건사회부에서 학교 생활지도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2시간 정도의 약물교육으로는 그들이 학생들의 약물교육을 담당할 수 없다.
6. 최근 필자의 연구소 조사(미발표)에 의하면 국민학교 학생들의 상당수가 남용약물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사회부의 순회 약물교육의 대상에 초등 교사도 포함시켜야 하겠다.
7. 외국의 경우 대부분의 나라들이 정부가 후원만하는 약물남용 예방단체인 NGO(non governmental organizations)가 만들어져 있어 수십차례의 UN관장-국제 회의들 갖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200개 이상의 NGO가 조직되어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물남용을 예방하고 억제하기 위하여 계몽을 담당하여야 할 사회단체가 하나도 없다. 빠른 시일내에 정부나 도(지방자치)가 후원하는 사회단체가 만들어져야겠다. 그리고 그러한 단체의 계몽 활동은 1회성이 아닌 지속성이어야 한다.
8.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마약류 중독자를 치료하는 전문 병원이 하나도 없다. 대용치료가 있을뿐이다. 현재 전문병원을 건설중이라고 하니 곧 해결되리라고 본다. 그러나 문제는 중독자 치료를 위한 전문의료인이 전무한 상태라는데 있다. 정부가 인력을 해외에 보내어 전문인 양성을 서둘러야 하겠다. 아울러 재활소나 재활단체도 만들어야겠다.
9.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물남용을 예방하고 억제하기 위하여 ① 사회조사 ② 법제정 및 개정 ③ 교육과 계몽 ④ 치료와 재활에 관한 지

- 식과 정보 그리고 자료를 제공하고 환자에 대하여 정확한 상담을 할 수 있는 정부차원이나 민간차원의 연구기관이 하나도 없다. 비록 필자의 연구소가 개인의 힘으로 미약하나마 극히 일부의 일을 하고는 있지만 국가의 장래와도 관련 지을 수 있는 이 사업은 정부가 선진국과 같이 직접 연구소(미국의 국립 약물남용 연구소: NIDA 등)를 만들거나 아니면 연구재단(캐나다의 약물남용연구재단: ARF 등)을 정부의 투자나 후원으로 설립하여 운영함이 바람직하다.
10. 현재 한국은 약물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① 마약법 ② 대마관리법 ③ 향정신성 의약품관리법이 있는데 동일시켜 하나의 법으로 만듭이 바람직하다.

IX. 맺는말

현재 인간에게 가장 두려움을 주는 질병은 에이즈와 암이다. 에이즈환자의 30-50%는 약물남용자들이다. 다시말하면 불결한 주사기 등을 서로 공동사용하여 약물을 남용하다 보니 그 상당수가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되게 됐다는 것이다. 약물남용은 또한 '사회암'이기도 하다. 암세포가 정상 조직세포를 무차별 공격하듯이 마약도 인간의 어느 사회 계층을 선별하여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무차별 공격을 한다. 흑, 황, 백인, 남녀노소, 저·고 소득층, 상하류층, 종교인과 비종교인 기타 등등.

한국의 마약류 사범 직업별 현황을 보면 의료인, 연예인, 주부, 학생, 회사원, 노동자, 농업, 공업, 상업, 어업, 운전사, 선원, 유흥업소 종사자 등 모든 직종에 종사하는 직업인들을 총 망라하고 있다. 마약류가 우리사회의 어느 한 구석도 빼놓지 않고 침투되어 있다는 증거이다. 내 이웃, 내 부모, 내 자식을 눈여겨 보아야 할 판이다.

약물남용의 만연 현상은 그 시대의 탐탁치 못한 정치, 경제, 사회상에서 비롯된 국민들의 도덕관과 윤리관의 퇴락에 의해서 나타난다. 고로 그 나라의 지도자들은 그들이 국민들을 위하여 과연 어떠한 일들을 하여 왔는지를 깊이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